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해방후 민청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

한 윤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해방후 새로운 단계
에로 발전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428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복잡
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 대중적이며 유일한 민주주의청년조직인 민청을 결성하신 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
하시였다.

민청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것은 민청조직을 전투적인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청년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청대렬안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을 철
저히 적발제거하는 한편 전동맹적인 맹원심사와 유일맹원증교부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
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복잡한 틈을 타서 민청간부대렬에 끼여든 우연분자, 불순분자들은 일정한 자
리를 타고앉아 저들의 반혁명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음모적인 방법으로 청년운
동앞에 중요한 투쟁과업이 나설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민청조직을 분렬파괴하기 위한 책
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35(1946)년 2월 15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하신 보고와 주체35(1946)년 5월
13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청년사업을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반동분자들의 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그
들의 책동을 적발분쇄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급적원썬들은 우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파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최후발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계급적원썬
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 인민주권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민청대렬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 일부 불순분자들이
민청대렬에 잠입하여 민청사업을 극력 방해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민청단체들에서는 동맹
대렬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적발제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불순분자들이 동맹대렬
에 기여들지 못하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청중앙위원회에서는 주체35(1946)년 4월
5일 확대위원회를 소집하고 민청창립후 3개월동안의 사업을 총화하는것과 함께 일부 동
맹단체들의 대렬장성사업에서 나타나고있던 좌우경적편향들을 심각히 비판하였으며 동맹
대렬에서 이색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취하였다.

민청중앙위원회는 주체36(1947)년 4월부터 5월까지 전동맹적인 간부심사사업을 진

행하여 민청간부대렬에 우연히 기여들었던 불순분자들을 축출하고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견실한 열성청년들로 튼튼히 꾸려나갔다.

전동맹적인 맹원심사와 유일맹원증교부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민청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여 민청조직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민청안에는 여러 청년단체들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망라되다보니 그들속에는 각이한 청년단체의 맹원증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지어 일부 청년들은 아무런 맹원증도 가지고있지 못했다. 이러한 형편에서 동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자면 유일맹원증부터 만들어주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일맹원증을 내줄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동맹원증제작과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였으며 맹원등록사업을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할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청에서는 민청조직안에 동맹대렬장성과 관리를 전임하는 부서들을 새로 내오고 유일맹원증제작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체 35(1946)년 3월 중순에는 전동맹적으로 일시에 유일맹원증을 교부할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민청중앙위원회는 주체35(1946)년 4월 제1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중앙과 각 도, 시, 군에 맹원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동맹적인 맹원심사 및 맹원증교부사업을 진행하였다.

각급 민청단체들에서 진행한 맹원심사 및 맹원증교부사업은 동맹원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며 민청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난 기간 민청대렬안에 기여들어 청년군중을 동맹조직에서 리탈시키며 민청의 위신을 떨어뜨리려고 책동하던 불순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청대렬을 정비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민청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각급 민청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종파분자들과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 빈고농출신의 청년들은 무식하고 수준이 어리다고 하면서 청년간부로 등용하지 않거나 많은 경우 정실, 안면관계로 자기들에게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민청간부로 등용하는 편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제때에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청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은 청년들의 조직이므로 여기에는 30살미만의 청년들이 망라되는것은 사실이지만 민청이 청년들의 조직이라고 하여 꼭 젊은 사람만이 청년간부로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청년동맹간부의 나이를 기계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혁명성이 강한가, 사업경험이 풍부한가, 정치사업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금 민청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민청간부대렬을 당원들로만 꾸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운동은 분열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민청간부대렬은 군중의 신망이 높고 조직력과 집행력이 강하며 사상적으로 견실한 청년들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민청간부대렬을 청년조직의 특성에 맞게 노동청년, 농민청년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식청년, 학생청

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청년들로 꾸리며 공산당원들과 우당원들도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간부선발에서 녀성간부들도 대담하게 등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낡은 봉건적관념으로 하여 녀성들을 천시하던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평등권은 먼저 민청에서부터 실천하여 녀성일군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청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난 청년당원들을 비롯하여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 빈고농출신의 우수한 청년들, 학생청년들, 녀성청년들로 민청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청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간부양성기관을 내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13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민청간부대렬을 잘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청년간부를 키워내기 위한 단기간부양성소를 내올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치에 따라 민청에서는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 수많은 민청학원을 설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상설적인 청년일군양성기관인 중앙청년간부학교(금성정치대학의 전신)를 창립하도록 하시고 수많은 청년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앙청년간부학교창립사업을 민청에만 맡기지 말고 당에서 직접 장악하고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학생선발문제와 청사문제 그리고 교직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35(1946)년 11월 5일 중앙청년간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민주청년동맹은 자기의 튼튼한 간부양성기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바로 여기에서 로동자, 농민출신의 청년들이 청년조직을 생기발랄한 산조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민청간부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부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직간부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직간부교육사업을 직급에 따라 시, 군민청위원장과 도민청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단기강습과 면급민청위원장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별단기강습, 시, 군 이동단기강습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제1기 중앙단기강습이 주체38(1949)년 1월 25일부터 1주일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50여명의 시, 군민청위원장들과 도민청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강습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동맹사업, 정치경제학과 철학 등 사회과학의 기본문제들과 함께 강의의 조직과 강의실의 합리적배치, 학습과 오락 등 일과생활조직, 집체토론, 학습조 등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도 조직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신 현직간부교육제도는 민청간부들의 지도수준을 높여주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청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4월 28일 민청일군들에게 청년일군들은 청년들의 감정과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여 청년들이 있는 곳

에는 언제나 혁명적략관주의와 혁명적기백이 넘쳐흐르고 약동하는 분위기로 끓어넘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일군들은 늘 청년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사업을 토의하며 군중의 힘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청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새기고 사업작풍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민청일군들은 아래민청단체들에 직접 내려가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새 조국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나가고있는 청년들을 자주 만나 그들과 사업을 토의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동맹을 강화하는데서 민청초급단체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초급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10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동맹을 강화하는데서 초급단체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초급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주청년동맹은 자기의 주되는 힘을 초급단체를 강화하는 사업에 돌리였다.

모든 민청초급단체조직들에서는 초급단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그들을 이동단기강습과 민청학원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한편 동맹원들이 있는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 민청초급단체를 빠짐없이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각 공장, 기업소, 기관, 학교들과 농촌, 어촌 등 어느 지역, 어느 부문,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 민청초급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청초급단체들로 하여금 동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며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민청간사들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민청원들속에서는 민청조직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 확립되게 되었으며 동맹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청초급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고 그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민청조직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갓 조직된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청의 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주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후비대로 장성강화되어나갈수 있게 되었다.